

중산층 위한 8년짜리 임대주택 나온다

〈뉴 스테이〉

정부가 중산층을 겨냥한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을 육성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호반 베르디움 스테이', '중흥 S클래스 스테이' '제일 풍경채 스테이' 같은 인기 브랜드의 장기 임대 아파트가 광주에 등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방안은 기존의 서민층 주거지원을 넘어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까지 노린 것으로, 입주인이 최대 8년간 퇴거 압박 없이 장기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주택 임대시장의 변화에 맞춰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중산층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월세시대' 진입으로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의 주거불안도 심화하고 있는데 비해 800만 가구에 달하는 임차가구 중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은 64만가구에 불과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5년·10년 민간건설 공공 임대, 5년 민간건설 일반 임대, 10년 준공공 매입 임대, 5년 민간 매입 임대 등 복잡했던 유형 또한 임대기간 8년의 장기임대와 4년의

국토부, 새해 업무보고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집값 낮은 광주에선 서민들이 혜택 볼 듯

단기임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대신 국내 민간 건설 임대주택 공급실적 1위인 부영과 같은 기업을 많이 만들어내 임대주택 재고를 늘리고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해 택지, 주택자금, 세제 등 전방위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들은 2년 단위로 과도한 보증금 증액과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8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해 전세에 치중된 중산층 임차가구를 월세로 흡수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임대 아파트의 브랜드는 '뉴 스테이'

(New Stay)로 정했다. 기존 아파트 시공자들이 임대 아파트를 지을 경우엔 해당 브랜드 뒤에 '스테이'가 붙게 된다. 정부는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의 예상 평균 월 임대료를 지방은 40만원, 수도권은 60만원, 서울은 8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3000만~1억원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나섰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황세를 타며 아파트값이 크게 뛰어들었지만, 여전히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집값을 보이고 있는 광주에서 중산층이 '내 집 마련' 대신 월세를 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광주의 중산층은 이미 내 집이 있거나 2채를 보유한 가구도 있어, 고품질의 임대주택이 등장하더라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집값 하락을 우려해 임대로 살거나,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오히려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지난 12일 대전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열린 한국전력 전력그룹사 사장단회의에서 11개 그룹사 사장들이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계획'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전 제공>

'빛가람 에너지밸리' 협력 방안 논의

한전 전력그룹사 사장단회의

한국전력 11개 전력그룹사 사장들이 광주·전남지역 미래산업을 선도할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계획'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전은 지난 12일 한전원자력연료(대전 유성구)에서 올해 제1차 전력그룹사 사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전력그룹사의 새로운

지방 본사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조환익 한전 사장을 비롯,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6개 발전자회사 및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연료, 한전KDN 등 전력그룹사 총 11명의 사장단이 참석했다. 한전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추진 중인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계획'을 그룹사 사

장들에게 발표하고, 본사 지방이전을 계기로 한전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천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전력그룹사 가운데 현재 한전과 한전 KPS, 한전KDN(이상 나주)이 본사 이전을 완료했고, 남동발전(경남 진주), 남부발전(부산 남구), 동서발전(울산 중구)도 지방에 안착했다. 또 올해는 중부발전(충남 보령), 서부발전(충남 태안), 한수원(경북 경주) 및 한전기술(경북 김천)이 지방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새해 새 설계

김재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농식품 수출, 향후 2~3년 골든타임”

‘한국형 푸드밸리’ 구축 中 교역 식품 대책 시급 직거래 페스티벌 활성화

“향후 2~3년이 우리 농식품 수출의 골든타임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 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아 총대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양파해 새해를 맞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김재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은 13일 광주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양은 반드시 가던 길로 되돌아오는 고지식한 정직함이 있다”며 “새해 새로운 각오로 농어업계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TA 시장 개방 대책 등 최근 농업과제가 전방위적으로 쏟아지는 상황에서 창조적 마인드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한 김 사장은 “웰빙 열풍으로 슬로푸드이자 건강식품인 한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점도 한국 농식품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한중 FTA 타결로 양국간 교역되는 농식품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라고 말했다.

aT는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지난해 정다오 수출전진기지와 청두 aT센터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온라인업체인 '알리바바'에 한국 우수식품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중국 식품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대대적으로 공략하면 조만간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3년 재임기간 꾸준히 추진해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한 '저비용 고효율'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실행하는 추축기관인 aT라고 말한 김 사장은 지난해 시행한 직거래 페스티벌을 더욱 활성화하고, 유통구조개선 아이디

어 공모전을 통해 얻어낸 다양한 아이디어도 잘 적용해 보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2009년 출범한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매출액이 6년여 만에 2조원을 달성했고, 이제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60%가 이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시사점이 크다는 것이다.

나주 혁신도시 시대를 맞아 함께 이전한 농업관련 기관과 연계해 '한국형 푸드밸리'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구체화했다.

“식품산업은 부가가치만 연 144조 원, 186만명이 고용된 중요한 산업임에도 국내 식품기업의 규모는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하면 크게 뒤쳐져 있다”고 전제한 그는 “올해 지역 농업관련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한국형 푸드밸리 모델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닦을 계획이며 이를 통해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aT의 주임무인 안정적인 안전한 농산물 수급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최근 농수산물 수급이 많이 안정되고 있지만 지난해에도 배추 생산량 급증으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많은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교훈 삼아 민간 수급조정위원회와 수급조정패널 뉴얼 단력적 운영 등 효율적인 수급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생각이다. 또 기상이변, 생산지도 변화 등 농산물 수입시장에 대한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조 임단협 의지 있다

34차 본교섭 중 파업 강행

12일 오후 임금단체협상 34차 본교섭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노사가 이틀째 교섭을 진행중인 가운데 노조가 교섭과 별개로 13일 근무조별 4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가 비난을 사고 있다. 본교섭이 진행되는 경우 쟁의행위를 벌이지 않던 관행을 벗어

나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 것은, 사측의 교섭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데다 합의안 마련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은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금호노조 금호타이어 지부는 13일 광주공장과 곡성·평택 공장에서 근무조별 4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두 차례에 이은 3차 부분 파업으로 노조는 14일

에도 근무조별 4시간의 4차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앞서 전남 협상을 재개한 노사는 13일 새벽 3시까지 교섭을 벌였으나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으며 이날 오후 협상을 속개했다.

이와 관련, 운장현 광주시장의 중재로 노사가 협상 테이블을 긴급히 마련하면서 한때 합의안 마련의 돌파구를 찾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왔지만 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하자 '과연 노조가 교섭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금호타이어의 조속한 임단협 타결을 그 누구보다 바라는 입장에서 노조가 교섭과 함께 파업을 강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노조가 교섭 타결보다 '실력행사'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17.14 (-3.81)	▲ 금리 (국고채 3년) 2.02% (+0.02)
▼ 코스닥 571.00 (-3.76)	▲ 환율 (USD) 1083.50원 (+2.10)



전라남도 음식문화개선사업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반찬 덜어먹기 등 깨끗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 기여

「남도좋은식단」 4대 실천강령

- ① 먹을 만큼 적정량 제공하기(재탕금지)
- ② 집게·국자·앞 접시 제공하기(덜어먹기)
- ③ 개인별 위생찬기 제공하기(개별찬기)
- ④ 주방개방 및 화장실 청결관리(청결관리)



한국외식업중앙회전라남도지회 회원 일동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비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불백 (6,000원)



초대박매출

신규창업,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른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민물수 있는 우리 지역광주의 본사 프랜차이즈입니다.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리다매!!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칩찬소장은 불경기일 맞출만큼 손님을 꼭잡안 반응을 얻고있습니다.